“불교 사회적 영향력 확대 역량 집중”

불교리더스포럼 7기 대표 임명장
“사회적 역할 강화”에 한목소리
연찬회 갖고 활동 방향 모색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불교리더스포럼 총재 진우 스님은 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리더스포럼 7기 상임대표단 및 공동대표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은 임명식 후 기념촬영 모습.

불교리더스포럼 총재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새롭게 구성된 7기 대표단에게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리더스포럼 7기 상임대표단 및 공동대표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불교리더스포럼은 종단은 물론 대사회적으로 각 분야 대표성을 지닌 불자들이 함께하는 중요한 조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최근 ‘한국인의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불교가 신뢰도는 종교 가운데 1위를 기록했지만, 국민적 영향력 부분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역량을 쏟아 포교 전법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주 소통하면서 불교가 사회적 화합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7기 불교리더스포럼은 기존 경제분과를 3개로 확대 개편하고 고문단과 지도위원단 등 지도기구를 강화해 조직 확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총 15개 직능분과를 갖추고 있으며 23개 지역교구 회원 등 약 1080명이 활동하고 있다.

상임대표는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상임부대표는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맡았다. 정원주 회장은 부친상으로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

공동대표로는 하정우 청와대 불자회장,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이귀남 제61대 법무부 장관(법조분과 대표), 육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경제1분과 대표), 김성섭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경제2분과 대표), 이혁렬 에스폴리텍 대표이사(경제3분과 대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공공분과 대표),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사회안전인권분과 대표), 이용식 문화일보 주필(언론분과 대표), 김정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예술분과 대표),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보건의료분과 대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금융분과 대표),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체육분과 대표), 구홍모 전 육군참모차장(군분과 대표),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남북분과 대표),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환경분과 대표), 윤재웅 동국대 총장(교육분과 대표),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부회장(대외협력분과 대표), 이연화 조계종 여성불자회 수석부회장(직능단체분과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상임지도위원에는 김진태 제40대 검찰총장이, 종단·청불회 소통자문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촉됐다. 총재특보는 김종필 내일신문 편집국장 이사(소통), 윤재연 블루원 대표(여성), 신상국 아가방컴퍼니 대표(국제)가 맡았다. 감사에는 이정하 하나손해보험 상임감사와 김정만 법무법인 지행인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이날 이기흥 상임대표는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대표단이 힘을 모아 한국불교 발전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교적 가치가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7기에 새롭게 합류한 공동대표들도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포교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김성섭 경제2분과 대표는 “불교가 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혁렬 경제3분과 대표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 불자로서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리더스포럼이 내실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웅 교육분과 대표는 “그동안 대학 교육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유치부부터 중등교육,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교교육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표단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불교를 올바르게 알리며 사회 속에서 불교의 역할을 넓혀 나가겠다”며 조계종이 추진 중인 ‘선명상 대중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임명식 이후 불교리더스포럼 7기 대표단은 연찬회를 갖고 향후 비전과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화사 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선안 스님

184표 중 95표 얻어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안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선안 스님은 2월 5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열린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투표자 184명 가운데 95표를 얻었다. 덕유 스님은 7표 차이인 88표에 그쳤다. 무효표는 1표다.

이번 보궐선거는 동화사 주지로 선출된 선광 스님의 사직에 따라 치러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은 2월 2일 242명으로 선거인단을 최종 확정했고, 이날 선거에는 184명이 참여했다.

선안 스님은 “선거를 준비하며 구석구석 다니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앞으로 교구 발전과 대중 외호에 힘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선안 스님은 현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7년 수계했다. 호법부 상임감찰, 총무원 사업국장, 거제 신광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구 임휴사 주지를 맡고 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조계종·명진 스님, 대법원 상고 안한다

2월 3일 “종단 화합 기틀 마련”
명진 스님 “과거 종단 비판 유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명진 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호간 합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을 마무리하고 종단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계종은 2월 3일 대변인 묘장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승가의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명진 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 오랜 사안을 원만히 매듭짓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계종은 종단에 대한 비방과 과거 종단 자산이었던 옛 한국전력 부지 환수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를 사유로 명진 스님에 대해 제적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명진 스님은 과거 종단에 대해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했었던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무원 역시 종단 자산 환수 추진 사실을 오인했다”고 인정하며 명진 스님이 오랜 기간 종단 내외에서 겪은 어려움과 고초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이후 종단은 승가 본연의 화합 정신을 바탕으로 종헌과 종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중앙선관위, 은해사 주지후보 소청 심사 또 연기

2월 9일 재논의 · 결정하기로
의견 청취–증인 심문 진행



은해사 주지후보 선출과 관련해 덕관 스님이 제기한 선거소청 심사가 또다시 연기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 이하 중앙선관위)는 2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428차 회의를 열고 2시간이 넘는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소청 심사 일정을 2월 9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위원장 태성 스님을 비롯해 위원 진산·선문·탄정·혜광·태설·득우·무일·유승 스님 등 9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소청인 덕관 스님과 피소청인 성로 스님을 직접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했다. 또 호법부 입회하에 덕관 스님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증인 A스님은 “선거 당시 (성로 스님의 투표지에) 빨간 도장이 찍힌 것을 봤고, 본 그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반면 성로 스님 측은 “선거 과정에서 투표지 공개는 없었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스님 2명의 서면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관련자들의 의견 청취를 마친 중앙선관위원들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과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두고 장시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 태성 스님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보다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종단 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 심사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9일 회의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경선’

현우 · 석두 스님 입후보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제5교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덕 스님)에 따르면 2월 5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영동 영국사 주지 현우 스님과 전 총무원 총무국장 석두 스님이 입후보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원경 스님의 직영사찰 강화 보문사 주지(관리인) 임명에 따라 치러지는 것이다.

보궐선거는 2월 26일 오후 1시 법주사 대방에서 실시된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는 2월 12일 회의를 열어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2월 23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6학년도 신(편)입생(학점은행제)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료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 제출서류 | ◈수료과정 :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일정 | 2026년 1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6년 3월 첫째주 3월 3일 화요일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영산재보존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3. 출가승려(법계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동방대학 2년졸업후 옥천범음대학 편입 하여 4학년 졸업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을 부여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회 장 조현성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김향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